

세종과 세조연간의 의학교과서 변화에 대한 고찰

국수호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List of Medical Textbooks During the Era of King Sejong and Sejo

KUG Soo-ho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The medical text books used during the Joseon Dynasty can be seen to change over time by examining various records. These records show that the list of medical textbooks suddenly changed a lot between the era of King Sejong and Sejo in the Joseon Dynasty. However, since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this topic yet, this study was conducted and the following causes of these changes were identified: The first reason is the compilation project of Euibangyoochui (醫類聚) because the date of compilation of Euibangyoochui is clearly related to the period of change to the list of medical textbooks. The second reason is the difficulty of the medical examin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Medical tests in the Joseon Dynasty were very difficult. Therefore, it was too unrealistic to keep 25 or 26 textbooks. Third, there was the problem of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textbooks. Because the prices of these books were very high at that time, owning 25 or 26 medical books for an individual was a significant financial hardship. This study was able to confirm this through various forms of circumstantial evidence. However, more historical materials should be discovered in the future an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more accurately grasp the situation of the time.

Key words : Korean medicine, Korean medical history, Joseon Dynasty, Medical Examination, Medical textbook

I. 서론

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는 중국 隋代에 기원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약 1300년간 존속하였다¹⁾. 이 제도는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고려시대 光宗 9년(958)에 과거제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1894년에 폐지될 때까지²⁾ 존재하였던 유구한 제도이다. 공직자의 전반을 임용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국가에 근간이 되는 행정계열뿐만 아니라 의학분야의 공직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시험이 적용되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의학과 관련된 관직을 얻기 위해서는 典醫監이나 惠民署에 생도로서 입속을 하고 醫科에 응시하거나 取才에 응시하여야 했다³⁾.

醫科 시험 혹은 取才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서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할 교재들은 醫科시험이 도입된 고려시기부터 이미 존재하였으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도 여러 기록을 통해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의 경우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 『經國大典』 등의 풍부한 사료를 통해 조선시대의 의학교과서가 꾸준히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일일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한, 중, 일 중 한국에서 오직 조선시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교과서로 사용된 의서의 목록을 나열해서 보자

접수 ▶ 2022년 04월 29일 수정 ▶ 2022년 05월 15일 채택 ▶ 2022년 05월 16일
교신저자 ▶ 국수호,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1-2274 E-mail : koogsuho@khu.ac.kr

1) 하원수. 「과거제도의 다중성」. 성대사림. 2011:39:55.
2) 유호석. 「고려 과거제도의 성립」. 한국사시민강좌. 2010:46:19.
3) 박훈평. 「19세기 후반 典醫監 醫學生徒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3;26(1):3-4.

보면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두 차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세종에서 세조연간에 있었으며 두 번째 변화는 임진왜란 전후에 있었다. 임진왜란 전후로 많은 의서 목록의 변화와 조선 정부에서 의서 출간 활동에 대해서는 김중권의 연구⁴⁾에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조선 전기 세종과 세조연간에 있었던 큰 변화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이유를 탐색하지는 않고 있다. 박훈평의 연구⁵⁾에서는 이 변화에 대해 너무 번잡했던 방식을 추리고 축소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를 기초로 하고 다른 문헌들을 살펴봄으로써 세종과 세조연간에 있었던 의학교과서 목록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위에 몇 가지 원인을 더 제시하고자 한다. 비록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 문헌이 발견되는 않아서 정황에 의한 추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세종과 세조연간에 있었던 의학교과서 목록의 변화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연구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만큼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 본다.

II. 본론

조선시대의 의학교과서 목록의 변화에 대해서는 『朝鮮王朝實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기록들을 살펴보다 보면 조선 전기에서 세종과 세조연간에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의 기사 중에서 세종12年(1430) 3月 18日의 기사를 보면 詳定所에서 醫學 取才의 과목을 “『直指脈』, 『脈纂圖』, 『直指方』, 『和劑方』, 『傷寒類書』, 『和劑指南』, 『醫方集成』, 『御藥院方』, 『濟生方』, 『濟生拔粹方』, 『雙鍾處士活人書』, 『衍義本草』, 『鄉藥集成方』, 『針灸經』, 『補註銅人經』, 『難經』, 『素問括』, 『聖濟總錄』, 『危氏得効方』, 『寶氏全嬰』, 『婦人大全』, 『瑞竹堂方』, 『百一選方』, 『千金翼方』, 『牛馬醫方』” 총 25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세조10年(1464) 5月 15日의 기사를 보면 “『素問』, 『張子和方』, 『小兒藥證直決』, 『瘡疹集』, 『傷寒類書』, 『外科精要』, 『婦人大全』, 『產書』, 『直指方』, 『銅人經』, 『大全本草』, 『纂圖脈經』, 『銅人經』” 총 13종의 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12건의 의서가 줄어든 것이다. 두 기사 간에 서로 겹치는 의서들과 겹치지 않는 의서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세종과 세조연간의 의학교과서 비교

	세종12年(1430) 3月 18日 실록기사에서만 나타나는 의서	두 기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의서	세조10年(1464) 5月 15日 실록기사에서만 나타나는 의서
도서명	『直指脈』, 『和劑方』, 『醫方集成』, 『御藥院方』, 『濟生方』, 『濟生拔粹方』, 『雙鍾處士活人書』, 『鄉藥集成方』, 『針灸經』, 『難經』, 『聖濟總錄』, 『寶氏全嬰』, 『瑞竹堂方』, 『百一選方』, 『千金翼方』, 『牛馬醫方』	『傷寒類書』, 『和劑指南』, 『危氏得効方』, 『婦人大全』, 『纂圖脈經』, 『銅人經』, 『直指方』, 『衍義本草』 ⁶⁾ , 『素問括』	『張子和方』, 『小兒藥證直決』, 『瘡疹集』, 『外科精要』, 『產書』

위의 표를 보면 세종연간에 사용된 의서들 중 『醫方集成』, 『御藥院方』, 『濟生方』, 『雙鍾處士活人書』, 『鄉藥集成方』, 『難經』, 『寶氏全嬰』, 『聖濟總錄』, 『瑞竹堂方』, 『百一選方』, 『千金翼方』, 『牛馬醫方』, 『直指脈』, 『鍼灸經』, 『傷寒類書』 등 16건의 의서들이 갑자기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록 중 16건이나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實錄 기사에서 보면 위와 같은 목록들은

신하가 왕에게 아뢰는 내용들이고 따라서 목록을 선정하는데 목록 작성자가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록의 내용이 갑자기 변화하는 것은 어떠한 원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實錄 기록 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문이 발생한다.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찰하여 이러한 변화에 몇 가지 개연성 있는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의방유취』

4) 김중권. 「朝鮮朝 內醫院의 醫書編刊 및 醫學資料室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2009;42:345-380.

5)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7.

6) 박훈평의 연구에 따르면 세종 시기의 의학 취재과목에 사용된 본초서는 『重修政化經史證類備急本草』로서 『經史證類備急本草』와 『本草衍義』의 합본이며, 문헌에서는 『大全本草』 또는 『本草衍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조선 간본으로 보면 동일한 판본이다.(박훈평. 「조선시대의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3-4.)

의 간행사업과 의과 시험의 난이도의 문제, 고가의 책값이다. 다음 장에서는 먼저 『의방유취』의 간행사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의방유취』 편찬사업이 의학교재의 변화에 미친 영향

『의방유취』는 세종의 명으로 1443년부터 1445년까지 3년에 걸쳐서 365권으로 1차 완성되었다가 세조 대 여러 차례의 교정을 거쳐 成宗8年(1477)에 266권 264책으로 간행된 현존 최대의 한의학 方書이다.⁷⁾ 이것은 唐, 宋, 元, 明 시기 동안 축적된 중국 의학자들의 성과와 鄕藥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高麗, 朝鮮의 의학이 집약된 결정체이다. 이것은 최종 편찬 시 1차 완성 시보다 100여 권 줄여서 출간해야 했을 정도로 매우 방대한 분량의 사업이었으며 그렇게 줄인 분량도 30질 밖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현재 규모를 유지하며 보존된 『의방유취』는 임진왜란 때 약탈당하여 일본 宮內廳 書陵部에 전해지는 1질이며 이것도 12책이 결실되어 있다. 『의방유취』의 편찬에 관한 기록은 『세종실록』 27년의 기사이다.

集賢殿 副校理 金禮蒙·著作郎 柳誠源·司直 閔普和 등에게 명하여 여러 方書를 수집해서 문을 나누고 종류별로 모으고 합하여 한 책을 만들게 하고, 뒤에 또 집현전 直提學 金汶·辛碩祖, 副校理 李芮, 承文院 校理 金守溫에게 명하여 醫官 全循義·崔閔·金有智 등을 모아서 편집하게 하고, 安平大君 李瑬과 都承旨 李思哲·右副承旨 李師純·僉知中樞院事 盧仲禮로 하여금 감수하도록 하여 3년을 거쳐 완성하였으니, 무릇 3백 65권이였다. 이름을 『의방유취』라고 하사하였다.⁸⁾

이 기사를 통해 세종27年(1445)보다 3년 전인 1443년에 『의방유취』의 편찬이 착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제1그룹의 의서들이 사라지는 시점은 세종24年(1442)에서 세조10年(1464)의 사이이다. 우선 기간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방유취』의 편찬과 세종, 세조연간의 의학교과서 목록의 급작스런 변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강하게 의심해볼 수 있다.

『의방유취』는 일종의 類書라고 볼 수 있다. 類書는 분류 항목을 세우고 그 분류항목에 따라서 어구나 문장을 전통적인 사부분류법에 속하는 經史子集의 문헌에서 추출하여 정리하거나 이에 관련된 편집자의 견해 정리해 놓은 형태의 저술 형태이다. 1차 텍스트를 가공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2차 텍스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료의 편리한 검색을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실용성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즉 지식의 구조화함으로써 분류를 적용한 책을 類書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經史子集 모두에서 가려서 뽑은 것만을 類書로 간주하고, 한 가지 일 혹은 한 가지 주제에 관해 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책은 類書로 간주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보통은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씨족과 인물의 이름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만 편술한 『古今同姓名錄』, 『元和姓纂』, 『萬姓統譜』와 같은 책들을 類書의 관례에 따라 類書로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⁹⁾, 經史子集 四部의 내용을 두루 포괄하지는 않았지만 子部 醫家類에 속하는 의서들을 주제별로 가려 엮은 『의방유취』도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볼 때 일종의 類書로 볼 수 있다. 전근대에 이러한 거대한 類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분류작업의 대상이 되는 1차 사료를 되도록 많이 모으고 그것을 찌꺼기라고 불리는 쪽지에 옮겨 적는 작업을 통해 1차 텍스트를 해체하고 그것을 새로 세운 주제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 조선후기의 학자인 姜世晉(1717-1786)은 그의 문집인 『警弦齋集』에 자신의 先大夫가 스스로 類書를 만드는 작업에 姜世晉 자신이 참여하였던 경험을 기록하였다.

이때 先大夫께서는 벼슬에서 물러나 녹봉을 받지 않으셨는데 오직 책으로써 노년을 즐겼다. 책 가운데 한 마디 말이나 한 구절이 아름답고 기이하여 완상할 만하다면 문득 찌꺼기를 붙여 나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였다. 기록한 것이 모두 15-16년이 되자 門目이 이에 갖추어졌으며 條例가 이에 갖추어졌다. 그 門目を 세우고 條例를 배치하는 것인 즉 『事文類聚』와 『彙語』를 얼추 모방하였는데 거기서 덜거나 더하였으니 門은 모

7) 안상우, 김남일, 조정은. 「동아시아 『의방유취』 연구의 회고와 전망」. 인문학연구. 2016;32:134.

8) 「命集賢殿副校理金禮蒙、著作郎柳誠源、司直閔普和等、哀集諸方、分門類聚、合爲一書。後又命集賢殿直提學金汶·辛碩祖、副校理李芮、承文院校理金守溫、聚醫官全循義、崔閔、金有智等編集之、令安平大君瑬、都承旨李思哲、右副承旨李師純、僉知中樞院事盧仲禮監之、歷三歲而成、凡三百六十五卷、賜名曰『醫方類聚』。」(『世宗實錄』, 世宗27年(1445) 10月 27日.)

9) 부유섭. 「類書類 古典籍의 綜合的 檢討」. 民族文化. 2019;54:60.

두 52가지이고目は 모두 587가지였다. 마침내 엮어서 18책으로 만들고 이름하여『類海』라고 하였다.¹⁰⁾

이 기록은 1차 사료에서 초록한 정보들을 정리 및 재가공하여 2차 텍스트인 類書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이다. 『의방유취』도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과정을 거쳐서 편찬이 되었을 것이다. 즉, 세종代 集賢殿에서 1차 사료인 중국과 高麗, 朝鮮의 의서들을 모아서 초록하고 그것들을 정리, 재가공하여 2차 텍스트로 만든 결과물이 『의방유취』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1차 텍스트들을 모으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였을 것이고 그 1차 텍스트들은 典醫監, 惠民局, 濟生院 등 중앙 의료기관들에 소장된 의서들이었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이들 의료기관들에 소장된 의서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세종13年(1431)의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예조에서 典醫監의 칙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감의 생도는 오로지 의학서를 습득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본감에 있는 『直指方』·『傷寒類書』·『醫方集成』·『補註銅人經』 등의 책은 다만 唐本으로 각 한 권씩만 있으니, 습득하는 사람이 많아서 함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鑄字所로 하여금 인쇄하게 하여 頒布하되, 지금 『補註銅人經』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형이 있어서 鑄字로 인쇄하기가 어려우니, 材木이 있는 경상도에서 판각하게 하고, 그 나머지 세 책은 주자소에서 각각 50권을 인쇄하여 본감 및 惠民局·濟生院 등에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¹¹⁾

위의 기사에서 典醫監에 소장된 『直指方』, 『傷寒類書』, 『醫方集成』, 『補註銅人經』 등은 모두 의과시험에 사용되는 도서이다. 그런데 典醫監에는 위의 네 서적이 중국에서 수입한 원서 한 부씩 밖에 존재하지 않아 공부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상기 네 도서들을 조선판으로 찍어내도록 결정하는 기사이다. 하지만 이후 이 서적들의 인쇄가 끝났다는 실록의 기사가 없다. 또한 현재 실물로 전해지는 판본을 고찰해보면 『直指方』은 초간본이 없고 후대의 간본만 있고,

『傷寒類書』와 『醫方集成』은 당시의 간본이 전하지 않으며, 『補註銅人經』은 세종21年(1439)에 초간 되었다.¹²⁾ 표 1을 살펴보면 『傷寒類書』와 『醫方集成』은 세종시기 기록에서만 나타나는 의학교재이고 『直指方』과 『補註銅人經』은 세종과 세조 두 시기 모두에 사용된 의학교재에 속하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세종시기만의 의학교과서들은 당시 주자소에서 모두 다 인출하지 못하고 다만 경상도에서 판각하게 한 『補註銅人經』만이 8년 뒤 실제 인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세종시기만의 의학교과서들은 『의방유취』 편찬사업을 시작한 세종25年(1443)에도 여전히 1부씩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1부 밖에 없는 책들을 차출하였으므로 해당 서적들을 사용한 학습과 의과시험의 진행도 어렵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이렇게 차출된 의서가 금방 반납되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의방유취』의 1차 편찬은 1443년부터 1445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세조 대 여러 차례의 교정을 거친 후 成宗8年(1477)에야 인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교정의 과정 때문에 세종시기만의 의학교과서들에 해당하는 의서들은 계속 『의방유취』의 편찬사업에 묶여 있었을 것이다. 세조5年(1459) 9월 4일의 기사를 보면 『의방유취』 교정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의방유취』도 또한 醫書의 大全이므로 日用에 艱요한 것은 진실로 『治平要覽』의 미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斤兩의 많고 적음과 藥性의 寒溫에 있어서 만약 조금이라도 틀린 점이 있게 된다면 사람을 해침이 매우 클 것이니, 그것을 교정하는 일은 마땅히 갑절이나 힘을 써야만 하고 쉽사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정을 儒士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臣이 보건대, 醫書를 習讀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두 文理를 통달하여 方書를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 이런 무리들로 하여금 교정하도록 하고, 원컨대 通儒로서 醫方을 아는 사람 1명을 뽑아서 근일에 『兵要』를 교정하는 예와 같이 감독하고 거느리게 하여 서로가 檢察하도록 해서 상벌을 준다면 반드시 별도로 書局을 세우고 별도로 廩祿을 주

10) “時先大夫退而家食, 惟以書史娛老. 書史中一言一句之瑰奇可玩者, 輒付標號, 俾余錄之. 錄之凡十五六年, 而門目於是焉具矣. 條例於是焉備矣. 其門目之建置, 條例之排布, 則略倣事類彙語而損益之, 門凡五十有二, 目凡五百八十有七, 遂編爲十八冊, 名之曰類海.” 姜世晉. 『警弦齋集』 권3. 『類海序』 (『韓國文集叢刊續84』. 서울:한국고전번역원. 2009:190-191.)

11) “禮曹據典醫監牒呈啓: “本監生徒專爲習讀醫方, 今在本監『直指方』·『傷寒類書』·『醫方集成』·『補註銅人經』等書, 只有唐本各一件, 習讀人多, 難以共看, 令鑄字所印頒. 今詳『補註銅人經』有圖形, 難用鑄字印之, 請就有材木慶尙道刊板, 其餘三書, 令鑄字所各印五十件, 分給本監及惠民局濟生院.” 從之.” (『世宗實錄』. 世宗13年(1431) 5月 11日.)

12)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3.

어 먹도록 하지 않더라도 일은 쉽사리 성취될 것입니
다.¹³⁾

조선시대 정부에서 인쇄를 할 때는 세 번의 교정과정을 거쳤는데 初見, 再見, 參見이다. 그리고 인쇄를 담당하는 監印官, 唱準, 守藏, 均字匠 등의 인원들은 한 권에 한 글자의 착오가 있으면 그 벌로써 곤장을 30대 맞아야 했다. 印出匠의 경우 한 권에 한 글자가 진하거나 희미하면 마찬가지로 곤장을 30대 맞아야 했으며, 官員의 경우 다섯 글자 이상 틀렸을 경우 파직되고, 唱準 등의 장인들은 매를 맞은 후 50일의 근무 일자를 깎이는 벌을 받았다.¹⁴⁾ 위의 기사는 『의방유취』를 교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약재의 분량 차이 약성의 寒溫을 기재한 부분에 오류가 생긴다면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하며 평소보다 갑절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의방유취』를 교정하던 사람들은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에 임하였을 것이고 그때마다 원래의 1차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1차 편찬이 끝난 세종27年(1445)부터 成宗8年(1477)까지도 많은 의서들은 교정에 사용되어 학습과 시험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의서를 차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의 기사를 보면 ‘醫書習讀諸人’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분명 醫書習讀官을 의미한다고 본다. 의서의 차출로 교과서도 부족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醫書習讀官들도 차출로 인하여 감소하였으므로 의학을 교육하는 것에 분명 애로점이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의방유취』편찬사업이 세종시기만의 의학교과서에 속한 의서들이 줄어든 원인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2) 조선시대 의과시험의 난이도

세종시기의 의학교과서 대부분이 갑자기 퇴출된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세종이시기에 교과서로 규정되는 25 혹은 26종류의 많은 의서를 모두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朝鮮時代의 醫科 시험 방식은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졌으며 더 세부적으로는 背講과 臨講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背講은 해당 책의 내용을 암송하

여서 답을 하는 것이고 臨講의 경우 책의 내용을 외우지 않고 임의로 주어진 해당 책의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험은 文科시험에도 존재하였다. 文科 覆試에서와 明經科에서 경전에 대한 구술시험을 본 것이다. 이는 조선을 개국한 신진 사대부 세력이 주자학을 깊이 수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들 신진 사대부 세력은 高麗시기에 존재하였던 監試가 문장의 화려한 수식에만 치중하여 경서의 이치를 밝히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배척하였으며, 구술시험 중 背講의 경우 경서 문장의 장구를 그대로 외우는 것에만 치중하여 정작 경전에서 말하는 이치에는 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 약 100여년을 거치며 과거시험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¹⁵⁾. 여기에서는 시험을 보는 수험서를 정하는 논쟁도 포함되어 있다. 文科 시험의 경우 初試와 覆試는 初場, 中場, 終場으로 나누어서 三場으로 진행되며 여기에는 구술과 논술의 시험이 두루 포괄되어 선택지가 여럿 있었다. 하지만 경서의 이치를 통달한 유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明經科의 경우는 모두 구술로 진행되었다. 이 시험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四書五經의 九書を 이용해 여기서 7通2略의 성적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하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실제 明經科에 합격하는 인원은 극히 적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목을 四書三經으로 줄이게 되어 七書講이 되었다.

醫科시험에서의 구술시험도 朝鮮時代 과거시험에서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文科 시험의 기준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文科의 구술시험을 기준으로 醫科시험의 구술시험을 평가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 둘을 비교해보면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바로 朝鮮 초기 醫科시험에 사용되었다고 『朝鮮王朝實錄』에 언급된 교과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초기에 교과서를 언급하는 세종12年(1430) 3월 18일의 기사를 보면 『醫學直指』, 『脈纂圖』, 『脈直指方』, 『和劑方』, 『傷寒類書』, 『和劑指南』, 『醫方集成』, 『御藥院方』, 『濟生方』, 『濟生拔粹方』, 『雙鍾處士活人書』, 『衍義本草』, 『鄉藥集成方』, 『針灸經』, 『補註銅人經』, 『難經』, 『素問括』, 『聖濟摠錄』, 『危氏得効方』, 『寶氏全嬰』, 『婦人大全』, 『瑞竹堂方』, 『百一選方』, 『千金翼方』, 『牛

13) “『의방유취』亦醫書之大全, 切於日要, 固非『治平』之所及也。然以斤兩之多少、藥性之寒溫, 若少有錯誤, 則害人甚大, 其校正之功, 當倍著力, 不可容易。然其校正, 不必儒士。臣觀醫書習讀諸人, 皆通曉文理, 熟知方書, 可令此輩校正, 乞選通儒知醫方者一人監領如近日『兵要』校正之例, 互相檢察, 施其賞罰, 則不必別立書局, 別處飲啖, 而功亦易就。”(『世祖實錄』, 世宗5年(1459) 9月 4日.)

14) 황정하. 「객원기자코너-조선시대의 인쇄교정」. 프린팅코리아. 2002;3:132-133.

15) 정지연. 「조선 초기 문과 강경과목 연구」. 교육사연구. 2010;20(1):85.

馬醫方』 등 25가지의 의서가 언급됨을 알 수 있다. 文臣들의 시험인 明經科에서 四書五經인 九書의 講書과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四書三經인 七書의 講書로 시험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5가지의 의서는 明經科 방식의 시험을 보기에 지나치게 많은 분량이다. 따라서 이들 교과서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3) 의학교과서 수급의 문제

다음은 경제적인 문제로써 세종 시기에 지정된 醫科 교과서를 다 갖추기는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高麗時代가 끝나고 朝鮮時代가 되자 국가에 종이의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것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되면서 국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각종 법전 및 전례서들의 인쇄, 관청에서 사용하는 문서용 종이의 수요, 明나라, 女眞, 日本 등과 교류하면서 요구되는 물품으로서의 종이의 수요, 민간의 일상생활에서 소용되는 종이의 수요 등 종이의 사용처가 많았기 때문이다.¹⁶⁾ 이에 朝鮮 정부는 중앙 및 지방의 제지소의 관리 및 닥나무의 보호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종이의 값이 기본적으로 높았다. 그러므로 그런 종이에 인쇄와 제본이라는 가공 과정이 더 들어가는 책은 더 비쌀 수밖에 없었다.

책의 높은 가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자료의 예를 들어 보면 『攷事撮要』에 수록된 가격표를 들 수 있다. 朝鮮 초기 뛰어난 중국어 실력으로 중국과의 외교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시문에 관해 李珣를 가르치기도 하였던 魚叔權은 明宗 9년(1544) 事大交隣 및 일상생활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攷事撮要』라는 책을 엮으면서 당시 전국의 책판 보유 현황에 대한 목록과 함께 당시의 책값에 관한 정보를 「書冊市准」이라는 별도의 편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순수하게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도서를 印出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적은 것이다.¹⁷⁾ 이 「書冊市准」안에 의서인 『本草衍義』와 『鄉藥集成方』의 가격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本草衍義』는 宋代 張存惠가 편찬한 『重修政和經史證類備

急本草』를 말하며, 문헌에서 『本草衍義』, 『大全本草』 등으로 나타나지만 朝鮮 간본으로는 모두 동일하며, 高麗時代와 朝鮮時代를 통틀어 의과 과목의 시험용으로 활용된 서적이다.¹⁸⁾ 표 1에서는 세종, 세조시기 모두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의서에 들어간다. 그리고 『鄉藥集成方』은 조선 세종 때 편찬된 鄉藥에 관한 醫方書로 세종12年(1430)에 의과 取才과목 도서의 하나로서 언급이 되며 상기 표 1에서 세종 시기에만 쓰인 의서에 속한다. 「書冊市准」안에 기재된 『本草衍義』와 『鄉藥集成方』의 가격을 보면, 『本草衍義』는 종이 58貼12장, 면포 3필, 쌀 1두이며 『鄉藥集成方』은 종이 99貼16장, 면포 5.5필이다. 여기서 ‘종이’는 인쇄할 때 필요한 종이의 수를 말하며 한 貼은 20장이다. 강명관이 『眉巖日記』를 바탕으로 환산한 종이값을 보면 2512장이 면포로 대략 20필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¹⁹⁾ 각각의 도서에 대략적으로 10필, 20필의 면포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 외의 ‘면포’와 ‘쌀’은 인쇄하는데 드는 품삯을 나타낸다. 조선후기 양인들이 병역을 하지 않는 대신 내야 했던 세금인 軍布가 일 년에 2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을 보면 상기된 두 의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매우 높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적의 값이 비쌌기 때문에 25종의 의서를 모두 마련하는 것은 고관대작이나 엄청난 거부가 아닌 이상에야 일개 개인에게는 요원한 일이었다. 朝鮮初期 당시에 서적의 수집은 개인이나 정부에 있어서도 정말 힘든 일이었다. 이는 實錄의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侍講官 崔淑精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비록 朝官의 집이라도 四書·五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개 적습니다. 경서가 저러하니 여러 史冊은 더욱 적습니다. 지금 魚箭²⁰⁾을 이미 典校 擧에 주었으나, 신은 어전을 더 주어서 책값을 감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사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서적을 많이 찍어서 널리 퍼고자 한다. 비용은 많이 들지마는 인재가 배출하면 어찌 작은 도움이겠는가?”하고, 승지에게 명하여 찍어 낼만한 서책을 적어서 아뢰게 하였다.²¹⁾

16) 전영준. 「조선전기 官撰地理志로 본 楮, 紙産地의 변화와 사찰 製紙」. 지방사와 지방문화. 2011;14(1):50.

17) 강명관. 『조선시대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서울:천년의상상. 2014:307.

18)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3-4.

19) 강명관. 상계서. 309.

20) 개울이나 강가, 바다 등에 싸리나무 등을 엮어서 담과 같이 둘러싼 것. 물고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잡는 어업방식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각 도에 설치된 어전에서 나오는 수익을 돈 대신 면적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위의 기사를 통해 조정의 관리들도 四書五經을 다 갖춘 집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四書五經은 위에서 文科初場 시험과 明經科에서 시험범위에 해당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었다. 그런 중요한 서적들도 개인의 집에 다 갖추기 힘들었다. 관청의 도서관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려웠다. 아래의 인용문은 成宗시기 內醫院에 있었던 『東垣十書』에 관한 기사이다.

同知中樞府事 成健이 일찍이 중국 북경에 가서 醫方을 구매하였는데, 『東垣拾書』를 얻어 가지고 와서 임금께 바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은 질병이 많아서 중국에 들어가 이 책을 구매하여 얻었습니다. 이제 들으니, 內醫院에도 이 책은 있으나 帙이 차지 않는다 하기에 감히 바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무릇 남의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醫方을 알아야 한다.’ 하였다. 내가 매양 이 말을 생각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무를 맡아 보는 사이에 힘이 능히 미치지 못하더니, 근래에 大妃께서 편찮으심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섭렵코자 하였다. 卿이 좋은 醫方을 바치니 내 마음으로 가상히 여기어, 馬裝 한 部를 내려 준다.”하고, 이어서 그 책을 內醫院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帙을 살펴보아서 아뢰라. 帙이 갖추어졌으면 마땅히 간행하도록 하겠다.”하였다.²²⁾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의학교과서 중 하나인 『醫學正傳』에 대한 『承政院日記』의 기사를 보면 궁중에서조차 의서를 온전히 구비해 놓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申翊亮이 內醫院官이 都提調의 뜻을 알린 것으로써 啓하기를 “醫書 가운데에서 『醫學正傳』한 부는 가장 완비된 것으로 오늘날 절실히 사용되는 책입니다. 하지만 本院에서 소장한 것이 다만 唐板 한 질에 불과하고 민간에서도 또한 보존되어 있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만일 혹은 잃어버리거나 파손된다면 이 책은 마침내 끊어지게 되니 심히 우려됩니다. 全羅監司로 하

여금 해당 도에서 간행하게 하여 널리 전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하니 傳에 이르기를 “啓한대로 의거하라.”고 하였다.²³⁾

위의 기사들을 보면 조선에서 가장 상급의 의료기관인 內醫院에서조차 醫書에 낙질이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기부를 받아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중국에서 수입된 서적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그리고 궁중에 소장된 중국판 한 질 이외에 민간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책이라는 언급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 김중권의 연구에 의하면 朝鮮前期 內醫院에 소장된 의서의 수급은 자체 인쇄보다는 사행을 통한 중국에서의 수입에 더 의존하였으며 자체적인 의서의 출간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부터 없어진 서책들을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²⁴⁾ 그리고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해 임금이 馬裝 한 부를 하사하는 것으로 보아 醫書의 기부가 얼마나 소중하였는지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방유취』 간행 이전에 의과시험용으로 지정된 많은 교과서들이 일시에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III. 결론 및 고찰

과거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였던 조선시대에는 의관의 임용에 있어서도 의과시험이나 취재를 이용해 의학계열의 인재를 발탁하였다. 시험을 위해서는 교과서가 필요하며 조선시대의 의학교과서는 여러 기록을 통해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교과서로 사용된 의서의 목록을 나열해서 보면 조선 전기 세종과 세조연간에 갑자기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원인들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의방유취』 편찬사업이다. 『의방유취』는 세종의

21) “...侍講官崔淑精曰：“我國雖朝官家，藏『四書』、『五經』者蓋寡。經書既如彼，諸史尤少。今魚箭已與典校署，臣請益給魚箭而減冊(賈) [價]，則人人易買矣。”上曰：“予欲多印書廣布。所費雖多，若人材輩出，豈少補哉?”命承旨錄可印書冊以啓。”(『成宗實錄』. 成宗9年(1478) 1月 23日.)
22) “辛丑/同知中樞府事成健嘗赴京購求醫方，得《東垣拾書》來獻，仍啓曰：“臣多疾病，入朝購得此書。今聞內醫院亦有此方而不帙，故敢獻。”傳曰：“古云：‘凡爲人子者，要解醫方。’予每念斯語，而萬機之間，力未能及。近因大妃違豫，方欲涉獵，而卿進良方，予心乃嘉。其賜馬裝一部。”仍下其書于內醫院，曰：“考帙以啓，具帙則當使刊行。”(『成宗實錄』. 成宗19年(1488) 10月 11日.)
23) “申翊亮，以內醫院官，以都提調意啓曰，醫書中，醫學正傳一部，最爲完備，爲今日切用之書，而本院所藏，只有唐板一秩，閭家亦無見存之處，此件若或失破，則此書遂絕，甚爲可慮，令全羅監司，開刊於本道，以廣其傳，何如? 傳曰，依啓。”(『承政院日記』. 仁祖17年(1639) 9月 18日.)
24) 金重權. 「朝鮮朝 內醫院의 醫書編刊 및 醫學資料室에 관한 研究」. 한국서지학회. 2009;42:361.

명으로 1443년부터 1445년까지 3년에 걸쳐서 365권으로 1차 완성되었다가 세조 대 여러 차례의 교정을 거쳐 成宗8年(1477)에 266권 264책으로 간행된 현존 최대의 한의학 方書이다. 『의방유취』의 편찬연대는 세종과 세조 연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기간 상으로 분명 연관이 있다. 또한 『의방유취』는 일종의 類書라는 점을 주목해서 類書의 편찬과정을 고찰하였다. 類書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1차 사료에서 초록한 정보들을 정리 및 재가공하여 2차 텍스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1차 사료들인 의서들을 되도록 많이 차출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세조 때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교정작업에도 이 1차 자료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작업에는 醫學生徒를 가르치는 醫書習讀官의 차출도 동반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의학 교육에 『의방유취』편찬사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확실하다.

두 번째는 조선시대 의과시험의 난이도 문제이다. 朝鮮時代의 醫科 시험 방식은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졌으며 더 세부적으로는 背講과 臨講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背講은 해당 책의 내용을 암송하여서 답을 하는 것이고 臨講의 경우 책의 내용을 외우지 않고 임의로 주어진 해당 책의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文科 明經科의 사례를 살펴보면 四書五經의 九書講에서 합격하는 인원은 극히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목을 四書三經으로 줄이게 되어 七書講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의과시험에서 교과서를 25 혹은 26개로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의학교과서 수급의 문제가 있었다. 조선시대 종이는 크게는 국가적으로는 각종 서적들의 인쇄, 관청에서 사용하는 문서용 종이, 여러 외국과의 교류에서 소용되었으며 군사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매우 수요가 많은 물건이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종이의 가격이 높았다. 또한 당시 실제 책의 가격을 살펴보면 매우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실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서적의 수장이 고관대작들에게도 매우 힘든 일이었고 실제 실록의 기사를 통해 궁중에 소장된 서적들도 부분이 없거나 부분적으로 소실되어 완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의학교과서 수급의 문제도 의학교과서의 절대적인 총수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록물들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세종, 세조 연간에 의과 및 취재에 사용되던 의학교과서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어떠한 기록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교과서 목록이 갑자기 많이 변화한 이유를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된 이유들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으므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는 극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한계점은 이러한 교과서들의 변화를 당대 의학 지식의 변화와 같이 내적인 변화에 적용시켜서 고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원인으로 제시하였던 『의방유취』사업의 경우 『의방유취』사업을 통해 기존의 다양한 의학지식들이 주제별로 분류되어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개별적인 지식의 암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는 방향으로 당시의 학풍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문헌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고찰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료들이 발굴되어 당시의 시대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좀 더 의학사상의 흐름과 연계가 된 연구가 진행되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1. 卢国复. 「江西上饶县明墓出土的明版古籍」. 南方文物. 1992;1:113-114.
2. 王瑞婷, 邹锦, 陶晓华. 「宋代《伤寒论》歌赋类著作特点研究」. 中医文献杂志. 2017;4:25-27.
3. 박훈평. 「19세기 후반 典醫監 醫學生徒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3;26(1):1-7.
4. 유호석. 「고려 과거제도의 성립」. 한국사시민강좌. 2010;46:19-39.
5. 김종권. 「朝鮮朝 內醫院의 醫書編刊 및 醫學資料室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2009;42:345-380.
6.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1-16.
7. 정지연. 「조선 초기 문과 강경과목 연구」. 교육사연구. 2010;20(1):83-109.
8. 하원수. 「과거제도의 다중성」. 성대사림. 2011;39:55-85.
9. 유호석. 「고려 과거제도의 성립」. 한국사시민강좌. 2010;46

:19-39.

10. 안상우, 김남일, 조정은. 「동아시아 『의방유취』 연구의 회고와 전망」. 인문학연구. 2016;32:134-172.
11. 부유섭. 「類書類 古典籍의 綜合的 檢討」. 民族文化. 2019;54:57-102.
12. 『韓國文集叢刊續84』. 서울:한국고전번역원. 2009.
13. 황정하. 「객원기자코너 - 조선시대의 인쇄교정」. 프린팅코리아. 2002;3:132-133.
14. 전영준. 「조선전기 官撰地理志로 본 楮, 紙産地의 변화와 사찰 製紙」. 지방사와 지방문화. 2011;14(1):47-78.
15. 강명관. 『조선시대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서울:천년의상상. 2014.